

# 기만인가 타협인가? - 임진왜란기의 외교교섭

정 지에시 (영파(寧波)대학 인문 및 미디어 학원(學院))

## 발표 요지

임진왜란은 만력(萬曆) 20년(1592) 4월에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면서 시작되었고, 만력 26년(1598) 11년에 일본군이 조·명(朝·明) 양국의 공격으로 모든 전선(戰線)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끝맺었으니, 무려 7년이나 지속되었다. 다만 실제 전쟁을 벌인 기간은 모두 합해서 고작 2년간으로, 4년 동안이나 지속된 화의 교섭 기간(1593~1597)이 더 길었다. 이 기간에 명조(조선을 포함)는 일본과 일찍이 한 차례 외교수단을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 충돌을 조정하여 동아시아 평화의 재구축을 꾀하였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다.

전쟁 중의 외교교섭에 대한 기존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은 양자의 화의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서 결코 타협을 이룰 수 없었지만, 쌍방의 외교집단이 공모하여 (본국을) 기만한다는 외교교섭 수단을 사용하여 본국 통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보고하여 타결을 이루어 냈지만, 결국에는 책봉에 실패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외교활동은 쌍방의 외교 대표를 교섭의 주체로 삼는다. 그 교섭 과정 속에서 발생한 정보는 몇 차례 여과 과정을 거치므로 양국의 고위층에게 전부 전해지기는 어려우니, 일정 부분 기만의 혐의가 존재한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명조나 일본이나 모두 그 실제 교섭 과정 중에서 상대방과 타협하기도 하였다. 명 측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군하는 것은 물론이고, 줄곧 일본과 “책봉·조공(封貢)”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야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책봉은 하되 조공하지 않는다(只封不貢)”고 결정하여 원래 허락하였던 “조공(貢)”을 철회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조건이 표면적으로는 더욱 가혹해진 것이지만, 실제 운용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일본 측은 외교교섭 과정에서 비록 끊임없이 명과 조선측과 타협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견지하였으니, 그 외교활동은 이미 동아시아 책봉·조공 체제의 외재한 표상으로 되돌아가면서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제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한 것이다.

## 약력

〈정 지에시 (鄭潔西) /Zheng Jiexi〉

2004년, 중국 영파(寧波, 닝보)대학을 졸업하고, 역사학 학사학위를 취득. 2006년, 중국 절강(浙江, 저장)대학을 졸업하고,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 2011년에 일본 간사이(關西)대학 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을 졸업하고, 문화교섭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직은 영파(寧波)대학 인문 및 미디어 학원 부교수.

주요저작 : ① 단독 저서, 『跨境人員, 情報網絡, 奉貢危機: 萬曆朝鮮戰爭與 16世紀末 的東亞』,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7. ② 공저, 『歷代正史日本傳考注』明代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6.